



킬리만자로 30번 등정에 도전하는 헤초여행사 박장순씨.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30번 오르는 산사나이

여행사 직원으로 기회가 많았던 덕분... 힘들지만 보람도 커

글 김기환 차장 ghkim@chosun.com 사진 헤초여행사 제공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는 아마추어 등산인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꼽는 곳이다. 만년설로 덮여 있지만 노멀루트를 통해 두 발로 걸어서 정상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은 산행과 함께 아프리카 특유의 이색적인 문화도 접할 수 있어 등산인들의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산이다. 그런데

일반인은 평생 한 번 오르기도 힘든 킬리만자로를 30번이나 등정한, 아니 등정할 산사나이가 있어서 화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해외트레킹 전문업체 헤초여행사의 박장순(53)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추석 때가 29회째 방문이었습니다. 30회 등정을 기념해 내년 2월 7일 출발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야 정확히 30회 등정

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킬리만자로를 오른 것은 일 때문이다. 손님들을 모시고 산을 오르는 것이 트레킹업체 직원인 그의 주요 업무다. 그렇더라도 30번은 정말 기록적인 일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등정기록이며, 탄자니아 현지 가이드를 제외한 외국인 중에도 박씨만큼 킬리만자로를 많이 오른 사람은 드물 것이다.

“1996년 9월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킬리만자로를 올랐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옛 직장에서 근무할 때였지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산을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산행 이후 한동안 킬리만자로를 못 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며 아프리카 여행객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2002년 들어 두 번째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400여 명과 함께해

1999년 5월 헤초여행사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후 20년 가까이 전문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주로 해외 고산 트레킹이다. 히말라야와 세계 각지의 고봉을 찾는 손님들과 함께하며 산행을 돕고 있다. 오랜 기간 한 자리를 지킨 영향도 있지만, 유독 그가 킬리만자로를 자주 찾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킬리만자로는 아마추어 산꾼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동경의 대상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행업에 종사하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30회 등정 기록을 세우게 된 바탕이 됐습니다. 차츰 경험이 쌓이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좀더 자주 가게 된 것 같고요.”

박씨의 기록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근상 같은 것이다. 하지만 보통사람은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든 곳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다. 킬리만자로는 한국 땅에서 멀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게 경험자들의 중평이다.

“킬리만자로 정상을 오르는 산행은 결코 쉽

지 않습니다. 수풀이 전혀 없는 표고차 1,000m의 황량한 구간을 하루에 오르내려야 합니다. 정해진 산장만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고소적응이 가장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해발 6,000m 가까운 산에서 먹고 자는 일은 엄청난 고통이지요. 적지 않은 분들이 고소증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합니다.”

고소적응과 체력안배가 등정의 비결

킬리만자로는 매년 한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산행지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거의 100% 고소증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트레커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4년 전 호롬보 Horombo 산장까지 도로가 생기며 환자 후송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여전히 고소증이 발병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다.

“원활한 고소적응을 위해 저희는 킬리만자로 산행 기간을 5박6일로 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4박5일 일정이었었는데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해발 3,780m의 호롬보산장에서 이틀을 자면서 고소에 적응한 다음 정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니 참가하신 분들의 컨디션과 등정률이 좋아졌어요.”

박씨는 고소증세 다음으로 힘든 부분이 음식이라고 봤다. 현지에서 내놓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았고, 식사가 부실하니 컨디션이 좋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손님에게 한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방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식재료와 양념을 공수해 투어 리더인 그가 직접 요리를 맡았다. 당연히 트레킹 중에 쉬지 못하고 잠도 덜 자야 했다.

“킬리만자로 트레킹은 산행도 고되지만 할 일도 많이 힘듭니다. 5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큼니다. 20년 동안 400여 명의 손님과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분도 많습니다.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박6일 동안 표범 복장으로 산을 오른 아버지도 있었고, 정상에 서기 위해 두 번이나 킬리만



1



2



3

- 1 킬리만자로의 정상 우후루피크(2009년 12월 29일 촬영).
- 2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표범 복장으로 정상까지 오른 의지의 아버지. 등반 내내 인기 만점이었다(2010년 7월 13일 촬영).
- 3 박장순씨가 킬리만자로 정상 우후루피크에서 포즈를 취했다.

자로를 찾은 분도 몇 명 계셨습니다. 정말 의지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가 보는 킬리만자로 트레킹의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방문객의 감소다. 2013년 에볼라 사태 이후 급감한 방문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노멀루트 외 다른 루트로 인원이 분산된 여파도 있지만 총 인원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킬리만자로 등정의 비법은 철저한 자리관리입니다. 출발 전부터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고소적응과 체력안배입니다.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바람 불면 옷을 꺼입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고소증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과 달리 고도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레킹 중에 그의 말만 잘 들어도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역시 산에서는 경험자의 조언이 중요한 법이다.

“킬리만자로는 황량하고 볼거리가 많지 않은 산입니다. 정상에 오른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두 번은 못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할 만한 산입니다. 목숨을 위협할 만큼 크게 위험한 요소가 없는 안심하고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ㄷ**